

## 내년 2월 “민간산악 구조대” 발족



### 명예감시원증 통보에 책임감 느껴

金 鍾 福

항상수고가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강산을 보전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협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리산 노고산장에서 10여년간 거주하면서 자연보호와 국립공원보호운동 및 산악구조활동을 통해 60여명의 조난객을 구조했으며 많은 산악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날로 급증되는 산악 인구나 폭발적인 탐방객의 고산등반에 대비하여 좀 더 철저한 산악 안전사고 방지책으로 내년 2월경 지리산 남부지역 민간산악구조대를 정식으로 발족시킬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해 회원들에게 철저한 공원보호에 이바지하도록 명예감시원증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발급된다는 통보를 받고보니 더욱 왕성한 책임감이 온몸에 느껴집니다.

저에게는 국립공원 지리산의 경관에 매혹되어 찾는 탐방객의 안전 사고방지에 더욱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아직은 미비한 상태지만 지리산의 경관과 자연자원을 자랑할수 있는 많은 자료도 준비하고 자연보호활동에도 이바지 되도록 구례에서 지리산 풍경 사진 전시회도 가졌읍니다.

또한 민간인으로서는 최초로 지리산과 섬진강

주변에 대한 뗏목학술조사를 두번이나 실시했으며 우리의 옛 문화와 지리산 일대의 잊혀져가는 전설도 발굴하여 왔읍니다. 앞으로 더욱 지리산의 자연보호와 공원의 올바른 이용을 계도하는데 힘을 기우리겠습니다.

지리산 노고단에 오시는 회원 여러분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1987. 12. 7.

[필자 : 지리산 전남지부 회원]

〈자기소개 : 필자는 1958년생으로 주소는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157. 76년 求禮농고를 졸업. 77년부터 대한산악연맹지리산산악회원. 자연보호감시관및 명예산림위원, 국립공원 지리산 노고산장거주 산악구조 요원. 80년부터 87년까지 지리산 섬진강 뗏목학술조사.

1981년 2월 4일~1주일동안 구례 제일다방에서 「지리산 풍경 사진전」을 개최하는등 지리산에 대한 애정이 깊다.

1983년 한국 야생동물지리산 사항노루 보존회 회원.

1985년 한국 국립공원 회원으로서 지리산 전남지부에서 활동중.

1987년 3월부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응급처치법강사등을 역임하면서 지리산 자연속에서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